

파이낸셜 뉴스



'한-미 FTA 발효' 업계 반응 2
'MB노믹스' 입 연 강만수 산은회장 5
그리스는 구했지만... 유럽의 한계 8
외국인 코스피 조정에 대비하나 9

코스닥지수	↑ 44.81	코스닥지수	↑ 41.54
2,028.66		544.20	
총액	↑ 43.82	금리	↓ 0.01
1,128.00		3.46	

fnnews.com

제3308호(1만발간) | 안내 02-2003-7114 구독 02-2003-7000 | 2012년 2월 23일 목요일

2009년 6월29일 창간

유동업체
등의 납품
을 결정하
는 오는
기 발견되
이리 공
경제를 위
1. 이르면

올해 상반기
에 있던 터라
인 '시멘트'가
이기에 정부-중
영업시간을
안하고 의무
제 도입으로
진 격'이 왔다
국 지자체로
1. 이르면

이런 가운데
인 '시멘트'가
이기에 정부-중
영업시간을
안하고 의무
제 도입으로
진 격'이 왔다
국 지자체로
1. 이르면

가미래 위한 결정 '이 추진할 것'

주변
근거가
경제발전
공정성이
있었음
1년 3만
주주권
가치회권
근거가
발달하는
목적이고
거기서
2011년
국적
발달
이
발달
발달
발달
발달
발달

본 '자세'라고
의 민주당
한 계속
이 대통령
'역사 포용
중요 선거
있는 선심
말이 격
다음 정부
양겼다. 비
장을 지
외적으로
이 대통령
출애 대해
어났다. 순
하더라도
이 스스로
고 있다'고
이 대통령
기업, 손
'대기업이
기업과 경
아 빠주
이 대통령
관련, '내
이 나를
다 화가
잠을 잘
없다'고

역사 노후설비 투자 위해 4개 중

설 대기업들의 '진 동반성장 롤모델'

생색만
20일
배우는
은 공
발달
연속
만
고
발
발

리지 않아
히기 때문
원 연
정밀도가
다고 설비
및주조



'Parables'

한국 처음 오는 시몬 랩

역사 인물화 등 20여점...24일부터 마이클 슐츠 갤러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 작가 시몬 랩(60)의 개인전 'Surface Tension'이 24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서울 청담동 마이클 슐츠 갤러리에서 열린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성장한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된다.

몬트리올 맥길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때 과학자의 삶을 살았던 작가는 캐나다에서 유명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삼촌의 영향을 받아 화가로 전향했다. 작가는 자신이 오랜 기간 공부했던 물리학, 기계공학, 자연 과학 등을 자신의 작업에 접목시키며 작품 제작의 방향을 변화시켜왔다. 캔버스 대신 대형 강철, 알루미늄판 위에 아크릴 페인트를 사용해 투명 색상의 레이어(層)를 만든 후 알루미늄 패널의 표면을 변형시키는 독창적인 방법을 발명해냈다. '부조 형태'로 존재하는 회화'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회화와 조각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parleau'라는 새로운 명칭

을 부여했다. 'parleau'는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par'와 '물'을 의미하는 'leau'를 결합해 만들어진 신조어. 자신의 작품이 물결을 통과하는 빛의 형상과 같다는 점에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지만 체코 출신의 아버지와 룩셈부르크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성장한 자신의 정체성을 은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역사적인 인물을 사실에 근거해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려낸 역사 인물화와 최근 작업한 조각 형태의 작품 등 20여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작가로 전향한 뒤 지난 2009년 독일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시몬 랩은 영국 런던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개인전을 펼친 바 있다. 과학자에서 작가로 변신한 그로서는 이번 한국 전시가 아시아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02) 546-7955 yuna.kim@fnart.co.kr 김유나 객원기자

주최... 내달 21~23일

이 부문에서
방식(FPP)
고 있습니다.
이 계 시장
분야인 만큼
남 발리핀과
기회가 제공
의 특히 이번
경제전문가와
경매와 함께
과 해외농업
면, 한-필리핀
사전 및 해외
내에서도 유
관 정부
공 관계자들
으로 내트워
기회가 될
필리핀 현지
중어권이나
내 기업들의
부채 드립

11~23일)
필리핀
인 기업이나
RA
부, 농림수산
한국수출입
시무국
이메일
www.biz

년에 6번이나?

기제보 잇달아 조사 착수



지가 동일한
피보원지 C
서 5의 출
수령했으나
명의 원
원 기
공공장에
에 출연
이에 따라
기초로 최근
이와 관련